



#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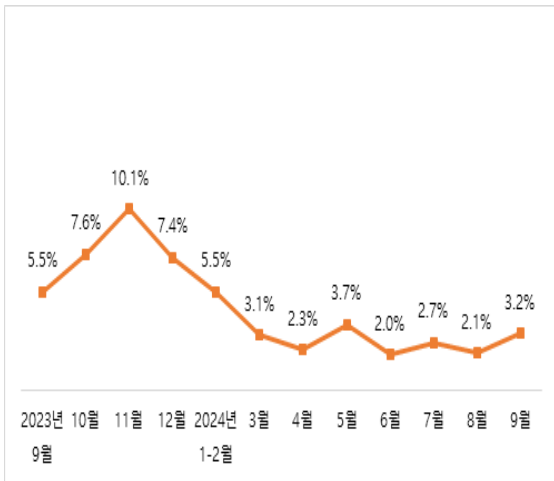
이메일 : beijingk@kita.net

### 1 中, 올해 1~9월 소매판매액 3.3% 증가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35조 3,564억 위안이며, 이 중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은 3.8% 증가한 31조 8,203억 위안

- 상품 소매판매액은 3.0% 증가한 31조 4,149억 위안, 요식업 매출은 6.2% 증가한 3조 9,415억 위안. 규모 이상(연매출 500만 위안 이상) 편의점, 전문점(Specialty Store), 슈퍼의 소매판매액은 각각 4.7%, 4.0%, 2.4% 증가. 백화점, 단독매장(Exclusive Shop)의 소매판매액은 각각 3.3%, 1.7% 감소
-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8.6% 증가한 10조 8,928억 위안, 이 중 상품 소매판매액은 7.9% 증가한 9조 721억 위안으로 전체 소매판매액의 25.7%를 차지. 식품, 의류, 일용품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각각 17.8%, 4.1%, 7.2% 증가

〈최근 중국의 월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2024년 1~9월 소매판매액 통계〉

품 목	총 액 (단위 : 억 위안)	증감률 (단위 : %)
<b>1. 요식업 수입</b>	<b>39,415</b>	<b>6.2</b>
*규모이상 기업의 요식업 수입	11,038	3.6
<b>2. 상품 소매판매액</b>	<b>314,149</b>	<b>3.0</b>
*규모이상 기업의 상품 소매판매액	126,639	2.2
식량·식용유, 식품	15,771	9.9
음료	2,413	4.5
담배·주류	4,526	6.8
의류·신발·모자·방직품	10,225	0.2
화장품	3,069	-1.0
금·은·주얼리	2,454	-3.1
일용품	5,848	2.2
스포츠·레저용품	991	9.7
가전제품, 영상·음향기기	6,839	4.4
의약품	5,235	4.7
문화사무용품	2,967	-2.9
가구	1,143	1.1
통신기기	5,459	11.9
석유·석유제품	18,201	2.3
자동차	35,361	-2.1
건축·장식재료	1,186	-2.6

\* 비교 : 규모이상 기업이란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도매 기업, 500만 위안 이상의 소매 기업, 200만 위안 이상의 숙박 및 요식 기업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https://www.stats.gov.cn/sj/zxfb/202410/t20241018\\_1957039.html](https://www.stats.gov.cn/sj/zxfb/202410/t20241018_1957039.html)

## 2 中, 1~9월 외자 사용액 30.4% 감소한 6,406억 위안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신설 외자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한 4만 2,108개 사, 외자 사용액은 30.4% 감소한 6,406억 위안으로 집계
- 제조업, 서비스업의 외자 사용액은 각각 1,792억 위안, 4,461억 위안. 이 중 첨단제조업의 외자 사용액은 771억 위안으로 전체의 12%를 차지, 비중은 전년 동기대비 1.5%p 상승
- 특히 의료기기 제조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컴퓨터·사무용품 제조업의 외자 사용액이 각각 57.3%, 35.3%, 29.2% 급증
- 국가별로는 독일과 싱가포르의 對중국 투자가 각각 19.3%, 11.6% 증가

자료원 : 상하이증권보

<https://finance.eastmoney.com/a/202410253217939794.html>

## 3 中, 제136회 칸톤페어 개최, 3,600개 사 참가

- 올해 제136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广交会, 10/15~19)에는 신싼양(新三样, 신에너지 자동차·리튬 배터리·태양광 제품), 디지털 기술, 스마트 제조업 관련 기업 3,600개 사 참가,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설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제품 등이 해외 바이어의 주목을 받음
- 중국은 현재 제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 도약하는 단계로 제조업 분야 기업은 총 603만 개 사, 이 중 전략적 신산업 종사기업은 52만 개사로 전체의 8.6%를 차지
- \* 전략적 신산업 : 에너지절감·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차 등 7대 산업
- 중국의 제조업은 공급망 개선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시장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기술을 통해 디지털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추세. 일부 핵심 기술 및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전문 인재가 부족하던 문제도 점차 개선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2410/22/t20241022\\_39176228.shtml](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2410/22/t20241022_39176228.shtml)

## 4 中, ‘2024년 중국 국제 가전박람회(10/18~20)’ 개최

-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개최된 ‘2024년 중국 국제 가전박람회(10/18~20)’에는 중국,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국가의 300여 개 다국적 기업이 참가하여 최신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분야 혁신 성과를 주로 전시

- 전시장은 '스마트 홈', '신형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디지털 생활 및 소비' 등 5개 전시구역을 설치, 주요 전시품 중 하나로 'AI 기반 가정용 로봇'이 소개되어 가사 및 교육 분야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
- 가전업체 하이얼(Haier) 그룹은 부스에 '녹색·저탄소 플랜' 표식을 부착, 현장 관계자는 가전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한 대의 에어컨을 수거·분해하면 플라스틱 14.6kg을 회수 가능, 5개의 고양이 모래집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s://www.cnstock.com/commonDetail/287270>

## 5 中, 올해 1~9월 택배 업무량 22% 증가

- 중국 국가우정국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택배 업무량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한 1,238억 건, 택배 수입은 14.1% 증가한 1조 위안을 돌파
- 택배 업무량은 빠른 증가세로 지난 5월부터 택배 업무량은 월별 140억 건을 돌파, 9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18.7% 증가한 150억 건을 달성
- 한편 △택배기업의 인공지능·디지털화 수준 제고, △지역별 저공 물류배송 분야 지원, △무인기·무인차량·신에너지차의 택배 분야 투입, △신규 택배 물류단지의 운영 개시 등은 택배업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

자료원 : 신경보

<https://www.bjnews.com.cn/detail/1729746293129121.html>

## 6 中, 패딩 제조원가는 상승한 반면 판매가는 하락

- 중국 내 한파와 광군절(11월 11일) 이벤트로 패딩 수요가 급증, 패딩 제조원가는 지난해 대비 1/3 가량 상승했으나, 브랜드별 할인 정책으로 판매가는 하락
- 패딩의 주요 원료인 오리털과 거위털 가격은 지속 상승세로 오리털(솜털 함량 90%) 가격은 2023년 톤당 40만 위안에서 올해 55만 위안으로 상승
- 반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의 패딩 가격은 큰 폭 인하됨. 패딩 전문브랜드 'YAYA'는 제품을 80% 할인 판매, 베이징시 시단(西单)에 위치한 '보스딩(波司登)' 매장은 2,000위안대 패딩 구입 시 할인쿠폰(100위안) 제공, '유니클로'도 기존 899위안 가격의 패딩을 799위안에 할인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끌고 있음

자료원 : 광명넷

<https://baijiahao.baidu.com/s?id=1814144218308137024&wfr=spider&for=pc>

## 7 中,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투자유치 보고서' 발표

- 중국 기업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투자유치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 기반산업 중소기업의 투자유치액이 빠르게 증가
- 2024년 6월 말까지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누적 투자유치액은 전년 동기대비 12.9% 증가한 7조 4,959억 위안, 2024년 상반기 투자유치액은 29.1% 감소한 4,071억 위안으로 집계
- 업종별로는 도매업, 금속제품 제조업, 일반장비 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투자유치가 활발

### 〈2024년 상반기 투자유치가 활발한 TOP20 업종〉

순위	업종	누적 투자유치액 (억 위안)	비중 (%)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2024년 상반기 투자유치액 (억 위안)	비중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1	도매업	6,898	9.2	16.9	519	12.5	△15.4
2	금속제품 제조업	3,517	4.7	18.3	269	6.6	12.7
3	일반설비 제조업	2,896	3.9	14.6	250	6.1	26.6
4	토목 건설업	2,870	3.8	20.0	223	5.5	40.1
5	소매업	2,235	3.0	22.5	217	5.3	68.3
6	장식·인테리어·기타 건설업	3,218	4.3	14.3	214	5.3	△17.7
7	전기기계·장비 제조업	2,935	3.9	12.0	186	4.6	△3.6
8	과학기술 보급·응용 서비스업	1,956	2.6	26.7	183	4.5	5.4
9	주택 건설업	3,189	4.2	14.4	177	4.1	△18.3
10	비즈니스 서비스업	2,695	3.6	21.3	164	4	△35.9
11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	2,620	3.5	13.3	149	3.7	△12.1
12	건축 시공업	2,324	3.1	7.7	147	3.6	19.3
13	특수장비 제조업	2,234	3.0	15.0	138	3.4	△19.7
14	기타 제조업	1,836	2.5	17.0	113	2.8	△53.5
15	연구·실험	1,262	1.7	16.24	111	2.5	0.2
16	비철금속제품 제조업	2,548	3.4	11.6	107	2.2	△21.6
17	컴퓨터·통신 및 전자설비 제조업	1,973	2.6	16.3	88	2.2	△49.2
18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2,223	3.0	12.9	83	2.1	△50.5
19	도로 운수업	1,124	1.5	19.1	77	1.9	△9.5
20	방직업	1,336	1.8	9.5	64	1.7	△17.9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jjckb.xinhuanet.com/20241022/1d131f40fc4547239458a479ff886c2d/c.html>

## 8 멕시코 공장 보유 中 자동차 업체, 고관세 부과 영향 검토 개시

- 10월 15일, 트럼프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100%, 200%, 2,000%) 부과 공약을 밝히자 중국의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한 자동차 업체는 미국 외 기타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분석

- 멕시코에 소재한 중국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는 900개 사,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한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 상장 중국 자동차 부품회사는 20개 사 이상이며, 이 중 2023년 해외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은 16개 사에 달함
- 올해 비야디(比亞迪, 10억 달러 투자), 상하이자동차(上汽) MG, 치루이(奇瑞), 동펑(东风) 등 자동차 업체가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힘
- SAILUN(赛轮) 타이어 관계자는 당사는 멕시코 외 베트남, 캄보디아에 공장을 건설했고, 인도네시아 공장도 건설 중으로 고관세 부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너자(哪吒)자동차회사 관계자는 멕시코에 투자한 목적은 남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이고 당분간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은 없다고 밝힘
- 2024년 1~9월 중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대상국은 러시아가 85만 대로 1위, 멕시코가 35.3만 대로 2위를 차지

〈중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대상국(지역) 및 수출 동향〉

수출 대상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9월	수출량 증감률(%)		평균 수출가(만 달러)				
							2023년	2024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9월
완성차	124.4	108.5	218.7	339.8	522.3	469.5	54	26	1.4	1.6	1.8	2.0	2.0
러시아	3.9	4.3	12.3	16.3	90.9	85.0	459	33	1.7	1.6	2.5	2.3	2.2
멕시코	11.3	3.5	9.4	25.6	41.5	35.3	62	22	1.2	1.0	1.1	1.1	1.1
사우디	5.8	9.8	13.3	22.3	21.4	18.5	△4	17	1.5	1.4	1.4	1.6	1.7
벨기에	0.1	1.9	11.2	20.8	21.7	21.8	5	40	2.5	2.8	2.7	2.9	2.6
칠레	7.7	5.7	19.2	21.2	9.5	8.3	△55	27	1.0	1.0	1.2	1.3	1.5
호주	2.6	4.0	9.8	16.3	21.5	13.3	32	△14	1.3	1.7	1.8	2.0	1.9
영국	1.9	2.6	8.1	15.1	21.4	15.1	41	13	2.0	2.6	2.8	3.1	2.9
필리핀	4.5	3.3	6.2	14.6	17.3	12.3	19	22	1.8	1.5	0.9	0.7	0.7
아랍에미리트	0.9	1.0	2.5	9.3	16.0	23.1	71	136	2.0	1.8	2.2	1.8	1.7
브라질	2.8	2.5	4.8	3.6	11.5	20.5	222	269	1.2	1.4	2.2	2.2	2.3
방글라데시	14.6	8.0	8.7	5.4	5.2	2.7	△3	△8	0.1	0.1	0.2	0.1	0.1
태국	0.6	0.4	4.9	8.9	17.1	9.3	92	△12	1.7	0.4	0.8	1.5	1.6
말레이시아	4.2	3.8	4.5	9.6	8.3	9.2	△13	88	1.0	1.0	0.9	1.3	1.3
인도	8.3	5.0	5.5	6.2	6.3	6.6	1	42	0.2	0.3	0.4	0.8	0.6
미국	4.0	4.1	5.6	8.3	7.5	8.0	△10	97	2.0	1.8	1.9	2.1	2.1
페루	4.2	2.9	6.0	7.7	6.6	5.1	△14	9	0.9	1.0	1.1	1.1	1.0
이집트	3.6	6.1	8.8	5.1	2.9	3.8	△42	157	0.7	0.8	0.8	0.8	1.0
베트남	3.6	3.6	5.8	7.0	4.9	5.2	△29	62	1.4	2.2	2.0	1.7	1.8
스페인	0.2	0.1	0.3	5.8	13.9	8.3	140	△8	2.6	1.2	3.2	2.9	2.7
이탈리아	0.7	0.6	3.0	6.7	9.2	8.0	37	26	1.1	0.8	1.1	2.3	1.3
중국 홍콩	0.0	0.0	0.8	1.6	2.0	2.0	28	57	0.9	3.0	3.1	3.1	3.0

\*출처 : 중국승용차연합회

자료원 : 중국매일경제망

<https://www.nbd.com.cn/articles/2024-10-25/3608648.html>